

태종대 전망대

Observation Tower of Taejong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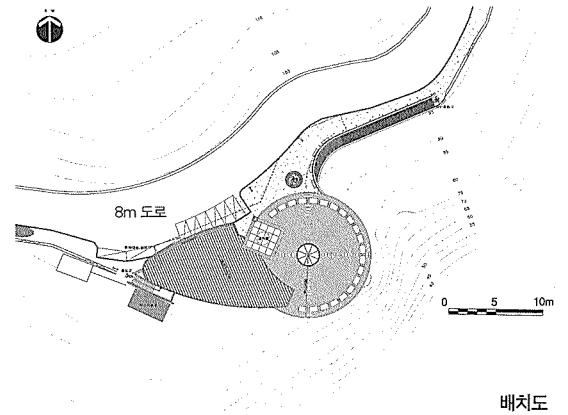
이충언+김광섭/ (주) 원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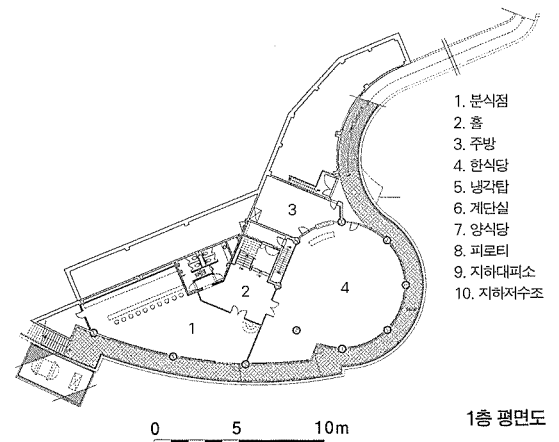
구름사이의 햇살이 내어 비추니 하늘과 바다라는 캔버스 위에 비취빛, 검푸른빛, 회색빛 회화의 장관이 연출되며, 대자연의 광대함이 펼쳐 내려다 보이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닿아 대자연의 벽천 감동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낭만과 추억을, 어떤 이는 좌절의 절망 속에서 검푸른 바다의 손짓에 유혹되어 몸을 던지기도 했다던가! 부산의 갈매기 뱃고동 소리와 함께 상징적 의미와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곳. 개발과 보존의 전제하에 상징성, 조형미, 복합적 기능을 충족하고자 Study는 시작되었으며, 기존절벽의 지형 위에 자연조건을 최대 살리며 휴식과 전망의 기능을 확보하고 바다 위에서의 조망까지도 고려, 전체 윤곽을 잡아본다. 일단,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란 자연과의 거부감을 갖기에 자연친화적 요소인 원형과 곡선의 도입을 시도해 본다. 바다와 하늘이라는 투명성을 갖기 위해 유리의 커튼월을 적용하면서 지형이 갖고있는 기존도로의 진입과 Level을 최대이용, 단순 절제된 평면 및 단면을 정리해 본다. 외관의 형태는 전망대라는 특성을 감안, 주공간의 원형 탑은 시시각각 변화 연출되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저멀리 아득하게 내려다보이는 바다와 함께 주변의 모든 풍광까지도 담아 보려는 욕심이다. 이렇게 펼쳐진 곡선과 원형의 내부공간은 실마다 햇벌이 들고, 실마다 보이는 각도에 따른 조망이 다르다는 변화에 만족하고, 또한 쾌적성, 일조, 통풍 환기에 있어서는 두말이 필요없다. 준공후 전체의 형태는 태종대의 거친 절벽 위에 반투명의 원형 우주선이 사뭇히 내려앉으니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것같이 흥미를 더해주며 야간조명 연출이 한층더 어우러지니 환상적 분위기이다.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드니 이왕이면 멋진 공간 속에 담겨져 대자연과 호흡하고 대화하며 눈, 비 맞으며 밀려드는 파도소리 바닷바람과 함께 좋은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만이 담겨질 수 있음을 직감한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태종대 유원지내)		
지역지구	자연독지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용도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1,162.133.80㎡
건축면적	792.45㎡	연면적	1,736.01㎡
건폐율	0.068%	용적률	0.13%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설비	서인설비	전기	청우엔지니어링
설계담당	윤영수, 양성수, 윤광식, 윤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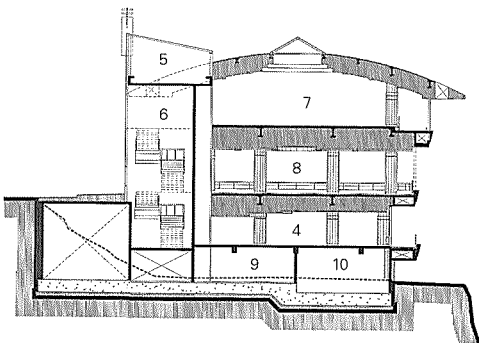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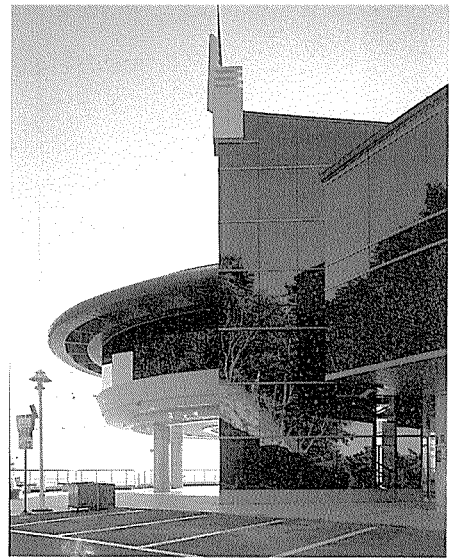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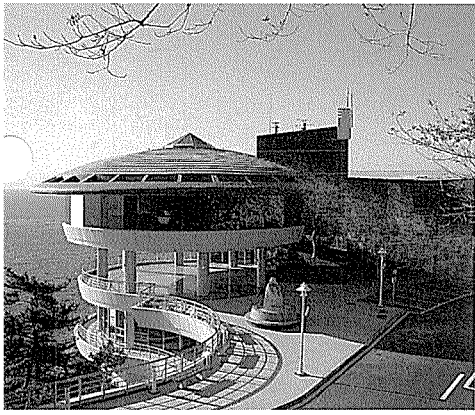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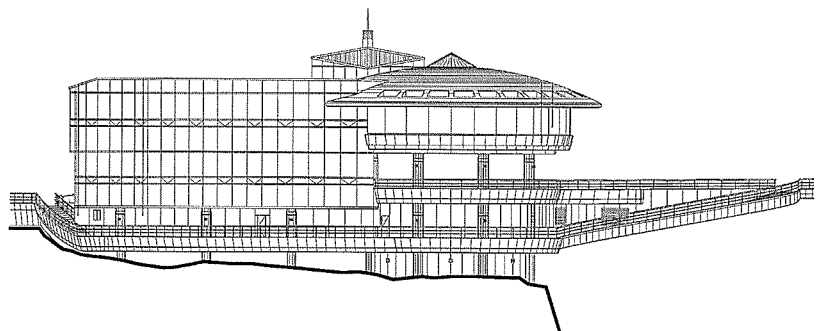


1. 분식점
2. 홀
3. 주방
4. 한식당
5. 냉각탑
6. 계단실
7. 양식당
8. 피로티
9. 지하대피소
10. 지하저수조

1층 평면도



일반단면도



남측입면도